

메이지 유신과 조슈 번

조슈 번(지금의 야마구치 현) 출신의 다이묘(넓은 영지를 다스린 대영주)와 무사, 반막부 세력은 메이지 유신(1868)을 위한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메이지 유신은 도쿠가와 막부에 의한 통치의 종언과 천황의 주권 회복을 의미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수년에 걸쳐 중요한 정치 개혁이 일어난 일본은 새로운 메이지 정부 아래에서 근대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야마구치 시에서는 일본의 운명을 결정지은 일련의 사건들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기여했던 유력자들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막부 말기 역사관(별칭: 잇포테이 유신관)에서는 조슈 번의 역사와 경제 침체, 기근, 그리고 외세와의 전쟁, 막부에 대항하는 다른 강한 번들과 맺은 맹약 등 조슈 번이 막부에 대항하게 된 계기에 대해 주요 전투를 표시한 지도와 상세 연표, 영상 투영 등을 이용하여 해설합니다. 조슈 번의 제 13대 번주인 모리 다카치카(1819~1871), 천황제의 복고(復古)를 지지하고 메이지 정부 수립을 추진한 활동가이자 조슈 번 출신인 5인의 무사(조슈 5인) 등, 당시 정치의 중심 인물들에 대한 프로필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간장 양조장의 옛터에 세워진 막부 말기 역사관은 부지 안에 1860년대에 조슈 번의 관리들이 숙박 시설로 이용했던 잇포테이 등 역사적인 건축물이 남아 있습니다.

천황 지지파였던 무사들은 전략을 세우고 맹약을 맺기 위해 잇포테이 등지에서 은밀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상인 가문의 별장으로 지어진 진류테이 또한 조슈 번과 사쓰마 번(지금의 가고시마 현) 출신 무사들이 밀회를 가졌던 장소로 알려져 있으며, 지금도 고잔 공원의 부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진류테이에서 회담을 거듭하면서 이들은 군대를 결성하고 막부에 대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들이 밀회를 가진 장소 중에는 조슈 번의 번주였던 모리 다카치카가 지었으며, 훗날 고잔 공원의 부지로 이전된 로산도도 유명합니다.

막부 말기 역사관에서는 천황 지지파였던 무사들과 관련된 야마구치 시내의 명소를 표시한 지도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가이드와 함께하는 역사 가도 하기오칸 워킹 투어에 참가할 경우, 일정에 메이지 유신과 관련된 장소를 자유롭게 넣을 수 있습니다. 워킹 투어는 하기오칸 가타리베노카이(이야기꾼의 모임)를 통해 참가할 수 있습니다.